수해아픔 나누는 자비손길

종단·사찰·단체등 복구지원 활발
'보현의 집' 노숙자·장애불자도 동참

수해지역에 자비의 물결이 거세다. 수마가 휩쓸고가 마치 폐허처럼 변한 경기도 파주 연천 문산 등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연일 내리쬐는 불볕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그동안 도움을 받아온 보현의 집 노숙자 1백여명과 장애인 등이 열성적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해현장에는 연인원 2천5백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했으며 교계에서 총 7천여만원 상당의 성금및 물품이 전달됐다.

종단 조계종은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3일 수해구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4일 KBS 등 언론사에 수해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5일부터 문산읍과 연천지역 2곳에 3백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했다.

태고종도 종단차원의 수해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4일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설산스님)가 1천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연천군 수해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했다. 또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왕선)는 쌀 생수 비누 등 3백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탁했다.

천태종은 4일 2천만원을 KBS에 전달한데 이어 5일 춘광스님(관문사 부주지)을 대표로 한 구호단을 연천에 파견하여 생수 속옷등을 전달했다. 이어 9일부터 10일간 자원봉사자 50명을 매일 투입해 복구를 돕고있으며 각 사찰법회시 특별철야기도법회를 개최, 수재의연금을 모금했다. 진각종은 2일 긴급수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3일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4일 1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대피소를 일일이 찾아가 생수 3백박스와 밀반찬 2천5백인분을 지원했다. 또 전 종무원과 복지재단직원들이 수해지역을 찾아가 복구지원 활동을 펴고 있다.

사찰·단체 수해현장에서의 각 봉사단체와 단[illegible]의사찰의 구호활동[illegible]열심이다. 대구 동화사(주지 [illegible])는 대구 MBC와 공동으로 수해 성금과 물품접수를 받았고 모아진 물품은 14일 연천지역을 방문, 직접 전달했다. 서울 광림사(주지 해성)는 6일 장애인불자 20여명이 등참한 가운데 문산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고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5일~7일 파주 연천지역에서 1백36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여 가재도구정리 청소 세탁 등으로 수해민들을 도왔다. 동국대 동림회(회장 자용)와 한국불교교화원(원장 운월스님)도 문산과 파주·연천지역에서 각각 수재민을 위한 자원봉사 및 절심공양봉사를 펼쳤다. 연천 향지모임(회장 양춘연) 역시 3일부터 수재민들에게 가재도구 정리 등을 도우며 수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옷등을 모아 전달하고 있으며 피해사찰를기에도 나섰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산사태로 돌과 토사가 밀려와 산신각 아래쪽 요사채가 매몰된 문경 윤필암. 선원 방안까지 물이 차고 주차장과 축대가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찰 15곳 '수해 피해'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인한 사찰피해는 총 15곳으로 집계됐다. 장흥 보림사(주지 현광) 경내에 세워진 국보 제44호 삼층석탑의 보륜(寶輪)부가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석탑 중심부에 세워진 찰주(쇠기둥)가 강풍을 이기지 듯해 휘어진 것. 이의에도 대웅전과 사천왕문의 기와 5백여장이 유실되고 사찰의 의벽 2곳이 무너졌다.

철원의 도피안사는 산사태로 종각 화장실 입구다리등이 유실됐으며 문경 대성사는 산사태로 요사채가 매몰되고 도로및 주차장이 유실됐다. 비구니선원인 윤필암은 산사태로 트사가 밀려와 요사채가 매몰되고 수도시설이 파괴됐다. 남양주 자재암은 삼성각 기와가 파손되고 축대가 붕괴됐으며 포천 성주사와 파주 금단사, 홍룡사, 연천 오봉사는 도로및 다리, 축대가 유실됐다. 동두천 태고종 광덕사는 담장과 계단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됐으며 고양시 광덕사는 5m 가량의 축대가 무너졌다. 김원우 기자

가야산 신설도로 환경평가 이의신청

해인사와 인근주민 30여명은 해인사 집단시설지구에서 가야산 국립공원을 지나 88올림픽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59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일부구간에만 이뤄지는등 문제점이 많다며 사업주인 경남도에 7일 경남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노선의 재설계에 들어가 최근 국립공원 바깥구간에 대한 노선을 선정했으나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노선을 변경하고 환경평가를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내 구간에 해당하는 가야산 치인리에서 성기리까지 11.48Km 구간은 종전노선을 그대로 둔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단체와 해인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윤호 기자

광주군 '군정백서'에 종교편향 내용 '물의'

경기도 광주군이 최근 발행한 군정백서가 특정 종교에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군이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의 군정을 소개한 제1기 민선자치 군정백서는 지역에서 덕망이 높은 분 등을 명예군수로 위촉한 현황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인 숫자는 명시하고 불교인은 기타항목에 포함시켰다. 김재경 기자

21세기 대중불교 방향 진단

21·22일 대원회 제10차 대중결사대회

대원회의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가 10주년을 맞아 제10차 대중불교결사를 21일~22일 1박2일간 대원불교회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제10차 대중불교결사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수행', '대중불교운동의 어제와 오늘', '21세기 대중불교의 긍극적 방향' 등 주제강의와 토론, 철야정진기도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故 장상문거사의 원력으로 시작된 대중불교결사는 80년대 말 불교의 대중화, 교리의 생활화, 의식의 현대화 이념을 전개하며,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민족과 사회를 바르게 이끌자는 대중불교운동으로 정착돼 왔다.

89년 7월 제1차 대회에서 △집집마다 부처님 모시기 △마을마다 불교회관 건립 △직장마다 법회 봉행 △모든 가정의례의 불교화 △오계 지키기를 생활화 등 대중불교 결사문을 채택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불교대중화 실천운동을 조직적 전개하는 등 한국불교의 재가불자신행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은자 기자

목조문화재 전산화
문화재청, 정밀 실측 실시 올 쌍계사 대웅전등 대상

문화재청이 증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을 실시하고, 이를 전산화해 체계적인 보존사업을 펼친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34건이 대상으로 문화재청은 목조문화재에 대한 상량문이나 창건 또는 수리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문헌자료와 인문·자연환경을 조사해 2008년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키로 했다.

올해 1차적으로 쌍계사 대웅전과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을 비롯한 5건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뉴스 & 뉴스

행자교육원 운영위원 위촉

행자교육의 체계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조직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9일 직지사에서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비(조계종 승가대학원장) 도법(실상사주지) 무관(해인사기획실장) 철우(영산율원장) 혜능(해인율원장) 지현(송광율원장)스님등 14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윤호 기자

노인복지 홈페이지 개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노인복지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9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 홈페이지는 국내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연꽃마을은 이 홈페이지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사이버 불교노인복지관'을 구축할 방침이다.

로우터스빌이라는 이름의 이 홈페이지(http://www.lotusvil.org)는 노인복지관련 각종 논문 및 세미나, 노인복지포럼 등의 자료와 함께 연꽃마을 신문기사를 제공하고 연꽃마을의 노인관련 24개 산하시설 이용방법도 소개해 놓았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가입할 수 있다. 한명우 기자

북어린이돕기 성금 전달

구룡사(주지 정우)는 7월 25일 가족법회에서 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 법타스님에게 북한어린이돕기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구룡사의 이번 성금은 북한어린이를 돕기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던 어린이 장난감 책 옷 핸드백등을 기증받아 1년7개월동안 알뜰매장에서 판매하여 조성된 성금의 1차분이다. 김원우 기자

옹진군, 백령면장등 징계

경기 옹진군은 5월8일 서해 백령도내 심청각에서 있었던 종교관련 사건과 관련해 김성일 백령면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김순호 옹진군 문화관광과 과장과 김성일 백령면장은 '훈계조처'됐으며 옹진군 문화체육담당 안상기 계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7월 20일자로 사직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복지 아이디어 공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발전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1세기를 대비한 발전방안 △예산절감 및 모금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스님이나 불자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불교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의 분야로 공모마감은 9월10일까지. (02)723-5101 한명우 기자

지하철 포교용 게시판 설치
풍경소리·지하철법우회…115개 역사 460개소

서울 1백15개 지하철 역사에 법을 포교용 게시판이 설치될 전망이다.

법을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서울지하철법우회와 공동으로 31일부터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1백15개 역사 각 4개씩 총 4백60개소에 부처님 말씀을 적어 불법을 홍포할 수 있는 게시판을 부착한다. 게시판은 '풍경소리'가 제작 및 설치, 관리를 맡고, 서울지하철법우회의 주관으로 월 2회 2종류의 새로운 내용의 포스터로 교체된다. 내용은 현대적 언어로 해석된 부처님 경전 말씀 및 설화를 비롯해 사회상을 반영한 국민 계도성 내지 희망의 메시지로 꾸며질 계획이다.

하루 약3백50만명의 시민에게 부처님의 말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풍경소리'와 지하철법우회는 도시지하철공사 및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역사로 게시판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10만불자 정토결사' 추진
전국신도회, 범불교 신도운동 선언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가 조계종 차원을 넘어선 신도운동의 구심체로서 변신과 조직확장을 선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신도회는 10, 11일 대전 유성 호텔 스파피아에서 세미나 및 전국불교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고<관련기사 6면> "앞으로 특정종단이나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신도운동의 구심체로서 취합적 성격을 띤 연합단체로서 운영 조직한다"고 결의했다. 전국신도회는 범불교 단체에 걸맞는 신행방향과 조직화를 위해 '10만 불자 정토 결사'를 올해 가을부터 전국순회 대법회 형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불교계 문화행사로 88올림픽 당시 한강에서 봉행한 10만 유등법회를 다시 재연, 각 지방 개최지까지 이 법회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팀장제도를 활성화 해 정토결사의 구심점을 만들고 독립된 여성기구를 설립, 여성불자의 조직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불교여성교육원 올 가을 설립
21일 간담회 개최

여성불자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원 (가칭)불교여성교육원이 올 가을 설립된다. 조계종포교원은 2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가칭)불교여성교육원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가)불교여성교육원은 지난 6월 107명의 여성불자가 참가한 여성불자워크숍을 계기로 여성불자의 모습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위한 장으로서 공식적인 불교여성단체가 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가)불교여성교육원은 지난 워크숍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천적인 신행혁신을 통해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교육, 종교인으로서 여성불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힘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한다. (가)불교여성교육원은 21일 간담회 이후 불교여성교육원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불자를 위한 교육, 포럼 등을 펼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교계여성지도자, 활동가, 사찰신도회 대표 등 30여명이 초청된다. 이은자 기자

수 맥 탐 사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수맥을 피해 잠을 자십시오.

아래의 경우에는 **수맥파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 증상**입니다.

1. 장기간 수행으로 인하여 관절염, 근육통, 요통, 우울증, 탈진 상태로 심히 고생하시는 수행자.
2. 잠을 자고 나도 피로 회복이 안되고 몸이 무겁고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흉몽을 자주 꾼다.)
3. 우울증이 생기며 대인 공포증이 생길 때.
4. 질병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 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
5. 노력해도 수업능률이 오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해지며 정신집중을 못하고 쉬 피로를 느끼며 신경질 적인 학생에게.
6. 오십견, 관절염, 신경통, 편두통, 요통등 증세가 생길 때.

수맥을 정확하게 탐사하여
수맥 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수맥을 진단하여 수맥 파 차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2. 수맥 파를 차단하고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드립니다.
3. 수맥 파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원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금강수맥원
송파구 거여1동 135-67(201호)
(02)400-6190
017)332-5019, 011)711-6190

구 인

전국 불교 장의 연합회 서울 지부에서는
더불어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학력제한은 없지만 어떤일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불자 환영

다 음
■ 운전면허 소지자 (40세 이하)
■ 이력서, 사진
■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FAX 02)739-4444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87호
(110-612) 전국불교장의 연합회 앞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 규격
- 종로구 80cm × 40cm
- 그외 지역 110cm × 55cm
- 개인소유지 : 제한없음

■ 재질 스텐레스
■ 허가 대행 및 A/S

취급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혁판, 건주용 간판, 게시판, 연등걸기배선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 지방출장 가능

신성기획 TEL: 02)3141-3789
02)332-3786
H.P: 016)336-3786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華宗 제7代 총무원장
위불(爲佛)스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華宗 維持財團

理事長 朴惠耕
常任理事 金普成
理 事 鄭坡南
理 事 金法超
理 事 崔爲佛
理 事 柳如鏡
理 事 朴惠光
監 事 朴春信
監 事 宋柱弘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233번지
☎ 02)763-8061